

##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이론

허 태 균<sup>†</sup>

한

민

김 연 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의 남녀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88)의 틀을 바탕으로 Madden, Ellen과 Ajzen(1992)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콘돔사용과 관련된 개인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되는 행동통제감, 그리고 미래의 행동의사와 과거의 행동을 조사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성행위시 콘돔사용이 다양한 위험예방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서양의 관련 연구들과 같이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감이 모두 콘돔사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콘돔사용행동을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 일치하였다. 더욱더 중요한 결과로 지각된 통제감과 콘돔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우선 콘돔사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남학생들이 더 갖고 있었으며,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이었다. 더 나아가 콘돔사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녀간의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개인적 태도가 남녀 모두에게서 행동의사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지각된 통제감은 남학생들에게서만 콘돔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녀차이와 무관하게 콘돔사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주관적 규범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남녀의 성행동에서 문화적 차이와 연관되는 것이어서 현실에서 콘돔사용과 관련된 갈등상황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콘돔사용의 통제감이 다양한 일상적 활동 중에 중간정도라는 본 연구의 결과와 통합하여,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과 교육의 특성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행동, 위험감수행동, 콘돔, 계획된 행동이론, 성차, 지각된 통제감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허태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 : 02)2173-3121, E-mail : drtkhur@hufs.ac.kr

성행위시의 위험감수행동이란, 성교 상대자가 다수이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거나, 성병이나 HIV에 감염된 사람과 성교하거나, 약물남용을 하는 사람과 성교하는 것 등을 말한다(Lock, Ferguson, & Wise, 1998).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십여 년간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성문화가 놀랄 만큼 변화하였다. 한국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성의식을 연구해 온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은자(1979)는 남학생 169명, 여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학생의 53%와 여학생의 2.5%가 성경험이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강현숙(198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47%, 여학생의 4%가 성경험이 있었다. 장순복 등(1998)은 서울 및 지방의 5개 대도시의 8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1,7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54.5%, 여학생의 18.4%가 성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변화한 성의식과 성행동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1998)은 68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명 중, 23.5%만이 피임경험이 있으며, 51.5%의 미혼모들은 피임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서정식과 이흥균(1999)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여자대학생 312명 중 14.9%가 피임법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은 회수는 2-3회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50.9%는 이제까지 받은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로 미루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 극히 낮은 한편,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관념과 안전한 성행위를 위해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전한 성행위를 위해 성행위시의 위험을 방지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 안전한 성행위

안전한 성행위(safe sex)라는 용어는 1980년 이전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을 의미했다. 그러나 AIDS의 발병이후, 이 용어는 HIV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성행위 시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ilorio, Parsons, Lehr, Adame, & Carlone, 1992). 반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unsafe sex)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 다수의 성 상대자를 두는 것, 다수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는 사람과 성교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Naomi, 1993). 많은 연구들에서 안전한 성행위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콘돔 사용의 빈도이다(Basen-Engquist, & Parcel, 1992; Baldwin & Baldwin, 1988; Basen-Engquist & Tortolero, Parcel, 199; Jemmott & Jemmott, 1991; Millstein & Moscicki, 1995). 콘돔사용은 피임과 HIV 감염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성관계를 맺는 상대의 수나 파트너의 형태(동성애, 이성애)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역시 콘돔사용을 안전한 성행위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 AIDS(HIV)의 예방

유엔 에이즈퇴치계획(UNAids)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집계된

전세계 AIDS 환자는 4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에이즈 전염 최신정보’라는 이 보고서는 2004년 약 300만 명이 AIDS로 숨지고, 500만 명이 새로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DS의 영향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프리카 남부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타 지역으로의 전파 속도 역시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극빈층의 매혈 등으로 전염되는 중국의 AIDS 확산 속도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내 AIDS 환자를 8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수의 AIDS 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2010년에는 AIDS 환자의 수가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2월 1일, 제 17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후진타오 주석이 국가차원의 AIDS 방지 노력을 촉구할 만큼 중국의 AIDS 확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 AIDS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AIDS 환자 수는 8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는 지난 2002년 4000명에 비해 2.1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AIDS의 감염은 이성간의 성 접촉이 주된 경로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내국인 신규 AIDS 감염자는 455명이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성관계를 금지시킬 수 없는 한, 현재의 의학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콘돔 사용이 거의 유일한 형편이다.

### 원치 않는 임신 방지

이임순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2배 이상의 인공유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공 임신중절률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현재 여전히 39%<sup>1)</sup>로 높은 편이다. 그 원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은데, 이는 효과적인 피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피임 실천률은 2000년 79.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피임 실천률이 높고 피임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인공유산율이 높고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선택한 피임방법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피임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인 ‘고아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 입양된 아이들은 15만 명에 이른다. 1950년대는 전쟁, 60-70년대는 가난이 입양의 주된 이유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한 해 4000여 명을 헤아리는 입양아들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이다. 다른 고아수출국들이 주로 경제적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순혈주의’ 혹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무지에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는 점차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으나(강희선, 2001), 그에 비해 성교육 경험은 매우 적고 청소년들의 성 지식 수준이 매우 낮아(김경신, 2001), 미혼모 및 입양아 양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병, AIDS,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 이임순 등(2002)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 초반에는 52-54%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39%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터울조절 20.5%, 임신부의 건강 9.5%, 혼전 임신이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돔사용이다(WHO, 1995). Steiner, Cates와 Warner (1999)는 성병, 에이즈에 대한 위험요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하였고, Pinkerton과 Abramson (1997)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사용할 경우 규칙적인 콘돔사용자보다 AIDS에 감염될 위험이 10-20배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콘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콘돔의 실제사용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권재구(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경험자의 21.2%가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박상화, 한정호(1999)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사람의 41.3%만이 콘돔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박상화, 임달오(2002)의 최근 연구에서도 그 비율은 38%에 그쳤다. 손애리, 조병희(2003)의 연구에서도 매년 콘돔을 사용한다는 사람은 9.7%에 그쳤으며, 때때로 사용한다는 응답자를 합하여 36.5%의 사람들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동성애자들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콘돔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콘돔사용율은 1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적인 콘돔사용율도 상당히 낮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집단에만 한정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60%가 넘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unsafe sex)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도 콘돔사용율은 그리 높지 않다. Strunin(1991)에 따르면 대학생의 75%는 성경험이 있었지만,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20%이하였으며, 성경험자의 30%이상은 콘돔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또한 Civic(200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34%만이 지

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하고 있었다.

## 심리학에서의 콘돔사용 행동

### 콘돔사용에 대한 연구들

한국 사회는 현재 AIDS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계각층에 홍보하려고 시도하는 단계<sup>2)</sup>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이론의 뒷받침 없이 시행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콘돔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 불리일수록 우려마저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TV 광고는 AIDS 예방에 대한 지식적인 메시지에는 충실한 편이지만, 실제 시청자들의 콘돔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콘돔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콘돔을 구하기가 쉬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교 및 지하철 화장실 등에 콘돔판매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Kirby 등(1999)에 따르면 교내 콘돔판매기의 유무와 콘돔사용 빈도는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콘돔사용행동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사람들의 실제 콘돔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는 AIDS 바이러스인 HIV의 감염예방에 초점을 두고 콘돔사용행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연구는

2)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0월부터 TV를 통한 콘돔 사용촉진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의 전광판, 옥외광고를 통하여 콘돔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 많지 않다. 박상화의 연구 등(박상화, 임달오, 2002; 박상화, 임달오, 한정호, 2003; 박상화, 한정호, 2003), 의학과 간호학 분야에서 몇몇 연구가 행해졌지만, 주로 콘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몇몇 요인들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제로 사람들의 콘돔 사용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강희선(2001)의 연구가 콘돔 사용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가정하고 있으나, 파트너의 지지, 사회망, 동료의 영향, 위험지각, 태도, 효능감, 성교전 음주 및 콘돔사용의도 등, 너무 다양한 차원의 변인을 다룸으로서 일반적 이론의 이점을 잃고 있으며, 그의 후속 연구(강희선, 장순복, 2004)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에 그 주된 관심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에 한정된 연구들은, 콘돔에 대한 태도가 바로 콘돔 사용행동으로 실현화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서 가장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콘돔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관념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태도가 콘돔사용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성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이어지는 태도-행동 이론의 발전과정이 그 사실을 반증한다(Ajzen,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를 포함한 실제 콘돔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해보려 한다.

###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관

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상생활에서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태도는 기본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전제되어 정의되어왔지만, 20세기 중반의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태도가 관련 행동과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경험적 자료들을 보고하였다(LaPiere, 1934; Wicker, 1969).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연구결과들은 후의 학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론적 또는 이론적 연구들을 촉발시켰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발전이 바로 이성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이다(Ajzen, 1988).

이성적 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한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인간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치)와 그 결과가 일어날 확률(기대)의 조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제안하였다. 즉,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들(주관적 규범)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행동의도가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그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제안한다(Fishbein & Ajzen, 1975). 이 논리는 태도와 행동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주관적 규범의 역할과 행동의사의 매개적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태도와 행동 간의 낮은 상관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Ajen(1988)은 실제 일상생활의 많은 행동들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뿐만 아니라 지각되는 행동통제감도 행동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

고 여기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Terry & O'Leary, 1995).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이성적 행위이론과는 달리 어떠한 행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에 덧붙여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였다. 실제로 Madden, Ellen과 Ajzen(1992)은 지각되는 통제감의 수준이 다양한 행동들을 사용하여 개인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되는 통제감, 그리고 행동의사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행동에 대한 통제감이 낮을 때에는 이성적 행위이론보다는 지각되는 통제감이 포함된 계획된 행동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 콘돔사용행동과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이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매우 심사숙고적인 행동의사결정만을 잘 설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Fazio, 1990), 콘돔사용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인간의 심사숙고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은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존 서양의 연구에서 제안되어져 왔다(John, & Glenn, 1993). Van der Pligt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시 콘돔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관주의, 통제착각, 고정관념 수준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ichard, Faith와 W. Blair(1986)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콘돔사용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콘돔 사용 행동에는 콘돔 사용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통제감 등의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 Salabarria-Pena, Lee, Montgomery, Hopp과 Muralles(2003)는 미국 중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을 사용하여 콘돔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이 모두 콘돔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lbarracin, Johnson, Fishbein과 Muellerleile (2001)는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콘돔사용행동을 이성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보다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중요시되는 콘돔사용(결혼 후 출산계획이 아닌 혼전 관계에서의 임신 통제나 AIDS를 비롯한 성병예방 차원에서)과 관련된 행동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탐색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첫째, 실제 콘돔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와 심리학적인 이론적 이해가 없는 현실에서 콘돔사용이 가장 중요시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탐색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과 콘돔사용의도 간의 관계(그림 1)를 검증하기 위하여, Madden 등 (1992)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였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미국 및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의 학생들은 성에 대해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볼 경우, 응답을 꺼리거나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과 콘돔사용행동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적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려 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일상적인 행동들에 비해 콘돔사용의 지각된 통제감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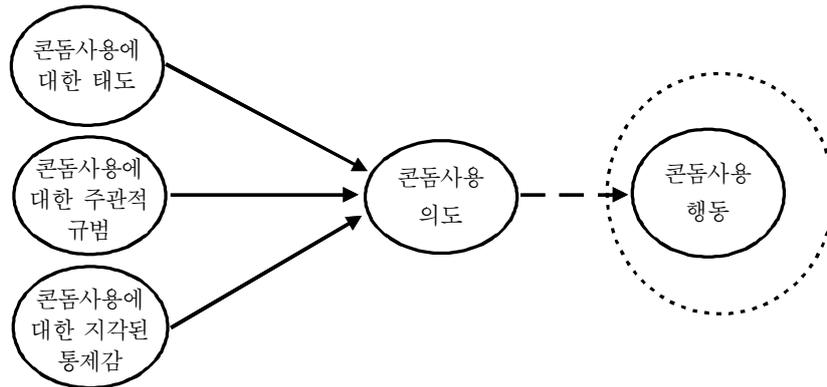


그림 1. 콘돔사용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둘째,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다양한 남녀차이가 보고되는 우리사회에서 직접적 성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인(1-2학년의 대학생)들이 콘돔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서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심리적 변인들과 행동이 남녀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Buss, Larsen, Western, & Semmelroth, 1992; Buss & Schmitt, 1993; Buss, 1995). Buss와 Schmitt(1993)에 따르면 이성간의 행동에서 남성이 더 주도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이러한 남녀간의 성차는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조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대한 전통적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는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Kim, 1991; 전효정, 이귀옥, 2000; 정진경, 양계민, 2003). 콘돔사용행동에 관한 한국의 연구들은 소수 존재하지만, 남녀간의 성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콘돔사용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콘돔사용과 관련된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향후 콘돔사용과 관련된 교육에서 남녀간에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방 법

본 연구는 콘돔사용을 포함한 10가지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들 중에 콘돔사용의 상대적인 통제감을 조사하였다. 또한 콘돔사용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측정하여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H 대학교 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10부는 콘돔 사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총

2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85명(42.3%), 여자 116명(57.7%)이었으며,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62명(30.8%)이었고, 그 중 콘돔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53명이었다.

### 연구절차

#### 측정도구

Madden 등(1992)이 사용한 연구방법과 측정문항을 기초하여 설문을 개발하였다. 우선 Madden 등이 선정된 10개의 행동 중에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세차하기’와 ‘세탁’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방 청소하기’와 ‘성관계시 콘돔사용하기’를 포함한 10개의 행동을 사용하였다.

먼저 10가지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통제감은 3문항으로 측정되며 각각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지각된 통제감

1. 내가 \_\_\_\_\_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점), 매우 쉽다(7점),
2. 내가 \_\_\_\_\_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전혀 통제 못한다(1점). 매우 잘 통제한다(7점).
3. 내 뜻과 달리 \_\_\_\_\_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매우 적다(1점), 매우 많다(7점)

10개의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은 설문지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 장에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무선적으로 다른 3가지의 행동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주고, 절대 옆 사람의 질문지를 보지 말라

고 하였다.

설문지의 다음 장부터는 10가지 행동 중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둔 ‘성관계시 콘돔 사용하기’와 지각된 통제감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호품 안하기’ 그리고, 지각된 통제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되는 ‘음약듣기’의 3가지 행동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태도(5문항, 7점척도), 주관적 규범(3문항, 7점척도), 행동의도(3문항, 7점척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태도

1. 나쁜-좋은(1-7)
2. 불쾌한-유쾌한(1-7)
3. 해로운-유익한(1-7)
4. 쓸모없는-쓸모 있는(1-7)
5. 즐겁지 않은-즐거운(1-7)

#### 주관적 규범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_\_\_\_\_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반대-1점, 매우찬성-7점)
2.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_\_\_\_\_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매우반대-1점, 매우찬성-7점)
3. 내가 \_\_\_\_\_을 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할 것이다. (매우반대-1점, 매우찬성-7점)

#### 행동의도

1. 나는 \_\_\_\_\_을 할 의도가 있다.(분명히 안한다-1점, 분명히 한다-7점)

2. 나는 \_\_\_\_을 시도할 것이다.(분명히 안한다-1점, 분명히 한다-7점)

3. 나는 \_\_\_\_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분명히 안한다-1점, 분명히 한다-7점)

경험여부

마지막으로 처음에 선정했던 10가지 행동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ex) \_\_\_\_을 한 적이 있다.

-18.4%)이다. 또한 콘돔사용 유무는 남학생의 45.2%, 여학생의 15.0%가 콘돔을 사용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콘돔사용비율은 27.9%였으나,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의 비율은 85.5%로 최근 연구들에서 보고된 40%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화, 한정호, 1999; 박상화, 임달오, 2002; 손애리, 조병희, 2003).

지각된 통제감의 크기

본 연구에서 선정한 10가지 행동들의 지각된 통제감의 크기는 표 2와 같다.

지각된 통제감이 가장 높은 것은 ‘음악듣기’(M=6.14, S.D=.99)였고, 가장 낮은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M=3.34, S.D=1.47)였다. 지각된 통제감이 큰 행동들은 ‘음악듣기’, ‘영화 비디오 보기’, ‘기호품 안하기’ 등이었고, 지각된 통제감이 중간 정도인 행동들은 ‘친구와 쇼핑하기’, ‘성관계시 콘돔사용하기’, ‘친구와 토론하기’ 등이었으며, 지각된 통제감이 작은 행동들로는 ‘규칙적으로 방 청소하기’, ‘규칙적으로 비타민 먹기’, ‘숙면 취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등이 있었다. 성관계시 콘돔사용

결 과

성경험 및 콘돔사용 빈도

조사대상의 성별에 따른 성경험 유무와 콘돔사용 유무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성경험의 경우 전체적으로 31.0%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남학생은 응답자의 51.8%, 여학생은 15.8%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장순복 등(1998)의 연구와 비슷한 비율(남자-54.5%, 여자

표 1. 성경험 및 콘돔사용의 빈도 및 백분율

	남학생	여학생	합계	$\chi^2$
성경험 유	44 (51.8)	18 (15.7)	62 (31.0)	
성경험 무	41 (48.2)	97 (84.3)	138 (69.0)	29.798****
합계	86 (100.0)	115 (100.0)	200 (100.0)	
콘돔사용 유	38 (45.2)	17 (15.0)	55 (27.9)	
콘돔사용 무	46 (54.8)	96 (85.0)	142 (72.1)	28.828****
합계	84 (100.0)	113 (100.0)	197 (100.0)	

\*\*\*\* p<.001

표 2. 지각된 통제감의 크기

	평균	표준편차
규칙적 운동	3.34	1.47
숙면 취하기	4.08	1.54
비타민 먹기	4.22	1.51
방청소 하기	4.49	1.34
친구와 토론	4.78	1.09
콘돔 사용	4.79	1.33
친구와 쇼핑	4.84	1.24
기호품 안하기	4.92	1.66
영화 비디오	5.21	1.37
음악 듣기	6.14	0.99

(M=4.79, S.D=1.33)은 10가지의 행동들 중 다섯 번째로 나타나서, 조사자들은 콘돔사용에 대해 일상생활 행동들 중에 중간정도의 통제감을 보고했다.

### 지각된 통제감의 성차

지각된 통제감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10가지 행동의 지각된 통제감에 대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결과, 10가지의 행동들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성관계시 콘돔 사용하기’,

‘친구와 쇼핑하기’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지각된 통제감을 많이 가졌고, ‘친구와 쇼핑하기’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지각된 통제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관계시 콘돔 사용하기’는 유의도 .10수준에서 성차를 보였는데(p=.074),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통제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의 성차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행동의도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콘돔에 대한 태도에서만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p=.094), 주관적 규범이나 행동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콘돔에 대한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따라 콘돔사용의

표 3. 성차에 따른 지각된 통제감의 차이

	남(N=85)		여(N=116)		F(1,19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3.87	1.65	2.96	1.18	21.046***
성관계시 콘돔 사용하기	4.98	1.37	4.64	1.29	3.225*
친구와 쇼핑하기	4.58	1.36	5.03	1.11	6.649**

\* p<.10, \*\* p<.05, \*\*\* p<.01

표 4. 성차에 따른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행동의도의 차이

	남(N=85)		여(N=116)		F(1,19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태도	5.33	1.14	5.59	1.07	2.823*
주관적 규범	4.66	.92	4.55	.97	n.s
행동의도	5.74	1.32	5.74	1.39	n.s

\* p<.10

표 5. 콘돔사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B	S.E	$\beta$	t
지각된 통제감	.176	.064	.172***	2.747
태도	.561	.077	.457****	7.252
주관적 규범	.177	.085	.124**	2.079

R<sup>2</sup> = .323 F(3,194)=32.287 p<.000

\*\* p<.05, \*\*\* p<.01, \*\*\*\* p<.001

도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태도,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지각된 통제감과 태도, 주관적 규범이 모두 콘돔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각된 통제감, 태도, 주관적 규범이 콘돔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지각되는 통제감과 개인적 태도 모두가 유의미하게 콘돔을 사용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태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콘돔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sup>3)</sup>

3) 성경험 유무에 따른 콘돔에 대한 태도, 주관적

콘돔사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지각된 통제감과 콘돔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콘돔사용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7).

규범, 지각된 통제감, 콘돔사용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콘돔에 대한 태도; F(1,197) = .978(p=.324), 주관적 규범; F(1,198) = .001(p = .973), 지각된 통제감; F(1,196) = .348 (p = .556), 콘돔사용의도; F(1,198)=.002(p=.962).

또한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차를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콘돔에 대한 태도; F(1,60) = 1.327(p = .254), 주관적 규범; F(1,60) = .475(p = .493.), 지각된 통제감; F(1,59) = .946(p = .335), 콘돔사용의도; F(1,60) = .232(p=.632).

표 6. 콘돔사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B	S.E	$\beta$	t
남 (N=85)	지각된 통제감	.196	.090	.202**	2.176
	태도	.556	.112	.479****	4.965
	주관적 규범	.209	.128	.146	1.633
$R^2 = .408 \quad F(3,80)=18.830 \quad p<.000$					
여 (N=116)	지각된 통제감	.154	.094	.143	1.649
	태도	.568	.112	.439****	5.083
	주관적 규범	.155	.117	.109	1.331
$R^2 = .285 \quad F(3,110)=14.605 \quad p<.000$					
** p<.05, **** p<.001					

표 7. 콘돔사용 유무에 따른 지각된 통제감, 콘돔사용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의 차이

	콘돔 사용(N=53)		콘돔 미사용(N=9)		F(1,6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통제감	4.98	1.44	4.30	1.49	1.720
태도	5.44	1.10	4.91	2.06	1.337
주관적 규범	4.70	.91	3.96	1.14	4.736**
행동의도	5.85	1.25	5.07	1.99	2.449

\*\* p<.05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참가자 중에 콘돔 사용을 하지 않았던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한계는 있지만, 주관적 규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과거의 성관계에서 콘돔을 이미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콘돔을 사용하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원치 않는 임신, 성병, AIDS와 같은 성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위험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어 온 콘돔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콘돔사용에 대한 개인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되는 통제감을 측정하고 그 요인들이 행동의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감 모두가 행동의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문화적,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제의 행동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콘돔사용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결과는 이러한 변인들에서 그리고 변인들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콘돔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의 교육과 같은 응용 상황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우선 콘돔사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들 중에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성행위시 콘돔사용을 매우 어렵게 지각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또는 ‘숙면취하기’보다는 어렵게 지각하였고 ‘음악듣기’ 또는 ‘영화비디오보기’보다는 쉽게 지각하여, 친구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거나 쇼핑을 가는 정도의 통제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행동들은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였고 콘돔사용은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콘돔사용을 그리 어렵게 지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85.5%가 콘돔을 사용했다는 결과와 종합적으로 보면 콘돔사용 자체가 그리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결과는 이러한 콘돔사용에 대한 통제감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육체적인 운동에서 더 우월하고 친구들과 쇼핑하는 것

과 같은 사회적 친교활동에서 여성들이 더 뛰어나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면, 본 연구의 콘돔사용에 관한 통제감에서의 남녀차이는 신뢰롭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행위에서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남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Kim, 1991).

통제감에서 남성의 높은 것과는 반대로 콘돔사용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콘돔사용이 성병이나 AIDS를 예방해주는 콘돔사용의 이익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인 임신의 가능성은 여성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현실을 반영할 때, ‘기대×가치’의 합으로 개인적 태도가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당연하다(Tolman, 1959). 또한 이러한 결과는 넓게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태도형성과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을 지지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Ajzen, 1988). 위에서 언급된 지각되는 통제감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높은 사실과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여성이 더 긍정적인 사실은 실제의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하려는 여성들이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남성과 갈등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제안해 주고 있다. 따라서 콘돔사용과 관련된 교육에서 남녀차이를 고려한 특성화의 필요성, 즉 남성들에게는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들에게는 지각되는 통제감을 높이고 실제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Salabarría-Pena et al., 2003).

더 나아가,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회귀분석

을 통한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와 지각되는 통제감, 주관적 규범이 콘돔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콘돔사용에 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콘돔을 사용하려는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지각된 통제감은 여성과는 달리 남성에게서만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즉, 콘돔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남성인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는 통제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통제감을 갖는가에 상관없이 콘돔사용에 대한 의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의 행동이 아닌 가상의 미래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 관련되어 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남성이 담당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DeSteno, Bartlett, Bravenrman, & Salovey, 2002).

이미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개인적 태도와 지각되는 통제감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규범이 실제적인 콘돔사용행동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인들이 자신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도는 미래의 가상적인 성행위에서의 콘돔사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실제 과거의 성경험에서 콘돔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모순된 발견은 관념적인 콘돔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상황에서의 콘돔의 사용간의 불일치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와 같이 성에 대한 토론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실

제로 주변사람들의 콘돔사용에 대한 규범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자신의 주변사람들이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관념적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의 성관계에서는 이러한 주변사람들의 인식과 기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후속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발견은 단순히 지식만을 주입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개방되고 진솔한 성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조사대상자들이 대학 1,2학년에 한정되다보니 성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및 콘돔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둘째, 기존의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다른 일상행동들과 콘돔사용에 대한 지각되는 통제감을 비교하거나 남녀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 문화권과의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 콘돔사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밝힌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실제 콘돔사용행동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간적 제약이나 사회문화적인 현실이 콘돔사용행동의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콘돔사용의도에 이은 실제 콘돔사용행동의 관계까지가 규명되어야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콘돔사용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 7과 같은 결과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즉, 미래의 성행위시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의 실제 행동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의 상황에서는 콘돔사용을 반대했던 상대방이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주변인물에 포함되었을 수 있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상의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을 답할 때는 미래의 성행위 상대방이 콘돔사용을 반대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콘돔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최초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물론 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이다.

### 참고문헌

- 인터넷경향신문 (2004, 10, 13). “이 광고를 보고 콘돔을 사겠습니까”. 2004. 11. 02 인출.
- 인터넷경향신문 (2004, 8, 6). [사설] 해외입양아, 따뜻한 모국의 정을. 2004. 12. 09 인출.
- 인터넷문화일보 (2004, 7, 16). 아시아도 ‘에이즈 비상’ 740만 명 감염. 2004. 11. 02. 인출.
- 인터넷 중앙일보 (1995, 8, 19). [토요건강백과] 에이즈-감염경로와 예방. 2004. 11. 02. 인출.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04. 10. 21).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AIDS). <http://www.mohw.go.kr/services/> 에서 2004, 11, 02. 인출.
- 강현숙 (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32(2), 120-125.
- 강희선 (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선, 장순복 (2004). 대학생의 콘돔사용태도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5), 751-759.
- 권관우, 이경무, 김정순 (1999). 중고등학생의 에이즈 예방교육을 통한 에이즈 지식과 성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보건학회지*, 12(1), 109-129.
- 권재구 (1997). 일부 대학생 및 회사원의 AIDS 예방을 위한 지식과 행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2001).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성주, 권일남 (1993). 청소년 성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2), 15-24.
- 김영숙 (1998). 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은자 (1979). 일 대학교 남녀 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혁곤 (1996). 대학생의 성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5.
- 문인옥 (1997a).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문인옥 (1997b). 일부 대학생의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1.
- 박상화 (2000). 피임법으로서 콘돔의 신뢰도. 대

- 한보건협회학술지, 26(2), 170-176.
- 박상화, 이봉경, 한정호 (2001). 우리나라 20-39세 유배우 부인의 콘돔 사용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7(1), 53-58.
- 박상화, 임달오 (2002). 일부 남자 대학생의 콘돔 사용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1), 66-71.
- 박상화, 임달오, 이봉경, 한정호 (2002). 남자대학생의 콘돔, 성병/에이즈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5, 46-55.
- 박상화, 임달오, 한정호 (2003). 일부 남자 대학생의 콘돔사용 태도의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구의학논집*, 16, 57-62.
- 박상화, 한정호 (2003). 미혼 남성에서의 콘돔 실천 수준. *인구의학연구논집*, 16, 52-56.
- 박상화, 한정호 (2000). 남자 대학생의 콘돔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59-66.
- 박희두 (1997). 대학생의 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교육연구사*, 95-117.
- 서정식, 이흥균 (1999). 미혼 여자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인제의학*, 20(1), 149-161.
- 손애리, 조병희 (2003). 전국 도시주민들의 콘돔사용 실태 및 콘돔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8(2), 76-94.
- 유길환 (1997).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23.
- 이임순, 이윤희, 정집광, 이석민, 이해혁, 이정재 (2002). 한국 여성 1,131명의 피임실천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대한산부회지*, 45(6), 960-966.
- 이선희, 한성현, 이명선, 조희숙, 채유미, 유승현 (2000).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1-8.
- 이춘신 (2001). 대학생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 (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연구소/대학가족계획협회부설*.
- 전효정, 이귀옥 (2000). 한국 부부들의 갈등과 갈등해소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별과 문화적 차이. *경성대학교 논문집*, 21(1), 75-93.
- 정진경, 양계민 (2003).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53-76.
- 한정호, 박상화, 김응익 (1998). 콘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4(2), 127-134.
- Albarracin, D., Johnson, B. T., Fishbein, M., & Muellerleile, P. A. (2001).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s Models of Condom Us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7(1), 142-161.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 Baldwin, J. & Baldwin, J. (1988). Factors affecting AIDS-related sexual risk-ta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5(2), 181-196.
- Basen-Engquist, K. & Parcel, G. (1992). Attitudes, norms, and self-efficacy: A model of adolescents' HIV-related sexual risk behavior. *Health Education Quarterly*, 19, 263-277.
- Basen-Engquist, K, Tortolero, & Parcel, G. (1997). HIV risk behavior and theory-based

- psychosocial determinants in Hispanic and non-Hispanic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8(suppl): S-44-50.
- Buss, D. M., Larsen, R. J., Wester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3(4), 251-255.
- Buss, D. M. (1995). Evolutionary Psychology: A new paradigm for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Inquiry*, 6(1), 1-30.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2), 204-232.
- Civic, D. (2000). College students' reasons for nonuse of condoms with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6, 95-105.
- DeSteno, D. A., Bartlett, M. Y., Braverman, J., & Salovey, P. (200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ary mechanism or artifacts of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03-1116.
- Dilorio, C., Parsons, M., Lehr, S., Adame, D., & Carlone, J. (1992). Measurement of safe sex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ursing Research*, 49(4), 208-212.
- Fazio, R. 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75-109.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Reading, Mass.
- Jemmott, L. & Jemmott, J. (1991). Apply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AIDS risk behavior: Condom use among black women. *Nursing Research*, 40(4), 228-234.
- John, B. P. & Glenn, D. R. (1993). *The Social Psychology of HIV Infection*. NJ: Hillsdale.
- Kim, Tae-lyon (1991). Gender rol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4(1), 103-117.
- Kirby, D., Brener, N. D., Brown, N. L., Peterfreund, N., Hillard, P., Harist, R., (1999). The impact of condom distribution in Seattle schools on sexual behavior and condom 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2), 182-187.
- LaPiere, R. T. (1934).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3, 230-237
- Lock, S., Ferguson, S., & Wise, C. (1998). Communication of Sexual Risk Behavior Among Late Adolescent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3), 273-294.
- Wiggers, L. W., de Wit, J. F., Gras, M. J., Coutinho, R. A., & van den Hoek, A. (2003). Risk Behavior and social-cognitive determinants of condom use among ethnic minority communities in Amsterdam.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5(5), 430-447.
- Madden, T. J., Ellen, P. S., & Ajzen, I. (1992).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213-219.
- Naomi, S. (1993). *Botswana female youth: Perception of sexuality and risk-tak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 Pinkerton, S. D., Abramson, P. R. (1997).

- Effectiveness of condoms in preventing HIV transmission. *Social Science Medicine*, 44(9), 1303-1312.
- Richard E. P., Faith G., & W. Blair G. J. (1986). Persuasion Theory and AIDS Prevention. In John, B. P & Glenn, D. R.(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IV Infection*(pp. 155-182). NJ: Hillsdale.
- Steiner, M. J., Cates, W. Jr., & Warner, L. (1999). The real problem with male condoms in non-us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26(8), 459-462.
- Strunin, L. (1991). Adolescents' perceptions of risk for HIV infection: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2, 221-228.
- Terry, D. J., & O'Leary, J. E.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5, 199-220.
- Tolman, E., C. (1959). Principles of purposive behavior.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Vol 62, pp.92-157). New York: McGraw-Hill.
- Van der Pligt, Otten, W., Richard, R., & Van der Velde (1993). Perceived Risk of AIDS: Unrealistic Optimism and Self-Protective Action. In John, B. P & Glenn, D. R.(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IV Infection*(pp.39-58). NJ: Hillsdale.
- WHO (1995). Global Programme on AIDS; condom promotion for AIDS prevention, WHO, Geneva, p 45. *Journal of HIV Infection*(pp. 39-58). NJ: Hillsdale.
- Wicker, A. W. (1969). Attitude versu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4), 41-78.
- Wulfert, E., Wan, C., & Backus, C. (1996). Gay Men's Safer Sex Behavior: An Integration of Three Model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4), 345-366.
- Salabarría-Pena, Y., Lee, J. W., Montgomery, S. B., Hopp, H. W., & Muralles, A. A. (2003). Determinants of Female and Male Condom Use Among Immigrant Women of Central American Descent. *AIDS and Behavior*. 7(2), 163-174.

## **Gender Differences of Risk-taking Decisions in Sexual Behaviors: Condom Us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aekyun Hu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n Han**

**Korea University**

**Yeonseok Kim**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gender differences of risk-taking decisions in sexual behaviors, specifically condom use during sexual intercourse.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jzen, 1988), attitudes toward subjective norms of,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in condom use were measured from 201 college students and their impacts on behavioral intentions and actual behaviors were examined. Condom-related attitude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were found to influence significantly on behavioral intention of condom use, supporting generally TPB in condom use. More importantly,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perceived controllability in condom use than female students, but positive attitude of condom use were vice versa. Furthermore, the regression analyses of the factors on behavioral intention revealed that perceived controllability influenced significantly behavioral intention only in male data even though attitudes were a reliable predictor of the intention in both male and female data. In addition, it was interestingly found that students who previously had condom-use experiences, rather than those who did not used condom in previous sexual intercourses, reported higher subjective norms related to condom-use. Tho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raditional sexual roles and stereotypes of Korean culture, and they suggest for development of systematic educational efforts specified for each gender and more elaborative and open-minded discussion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sexual behavior, condom use, theory of planned behavior, gender difference, perceived controllability*